발간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2025-0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인권-결과보고-2025-001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TEL. 02-735-1050 | **FAX.** 02-6363-8493 | www.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목차

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5
2. 주요 기능 6
3. 피해지원 및 협력체계도 7
4. 피해지원 절차 8

Ⅱ. 지원 현황

1. 전체 현황 12
   가. 지원 실적
   나. 지원유형별 현황
2. 지원 피해자 현황 15
   가. 지원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나. 피해 유형
      - 연령대별 피해 유형
      - 성별 피해 유형
      -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자 현황
   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 연령대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 성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3. 지원 현황 27
   가. 최초 상담 경로
   나. 피해 인지 경로
   다. 피해영상물 유형
   라.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마.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바. 피해영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4.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34
   가. 수집 사이트(도메인) 서버 국가 현황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다.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부록

1. 피해지원 우수사례 37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공백 최소화
   - 수사기관 협력 및 국제 공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입 차단
   - 국외 불응 사이트 대응 강화
   - 허위영상물 유포·확산 방지
2.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문기관 42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44
4. 통계자료 46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I.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2. 주요 기능
3. 피해지원 및 협력체계도
4. 피해지원 절차

1. 센터 개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5년 4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2. 주요 기능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지원

- 36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긴급상담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협력체계 운영

- **플랫폼 사업자** 전용 삭제요청 창구 운영
- **수사기관** 유해사이트 폐쇄 및 유포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을 위한 심의요청
- **국외 지원기관** 삭제요청 불응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 관련기관** 상담 및 삭제 신속 지원 핫라인 창구 운영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확산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지원 및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매뉴얼·보고서 제작 및 확산
-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컨설팅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연구·홍보
-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분야 전문성과 경험 국제사회 확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술 기반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 연계 효율화를 위한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고도화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공조 강화로 삭제지원 기술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의 기술개발 협력

3. 피해지원 및 협력체계도



4. 피해지원 절차

상담지원 업무 흐름도

상담접수
- 대표 상담전화 **1366**
-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온라인 상담 **d4u.stop.or.kr**

초기상담
- 유포 여부 등 전반적 피해 상황 파악
- 경찰 신고 안내 등 기타 지원
- 디지털성범죄 맞춤형 피해 상담

피해확인 및 서류접수
- 피해영상물, 유포 게시물 URL 등 확보
- 삭제지원 신청 서류 안내 및 접수

피해지원기관 연계·관리
- 심리치료·의료지원 등 연계 및 지원 사항 모니터링
- 심층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진행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1. 피해영상물 유포 후

피해영상물 검색
- 유포 범위 파악
- 지원전략 수립

긴급 삭제지원
- **플랫폼별 삭제요청** ➡ 사이트
- **심의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채증지원** ➡ 수사기관

재유포 모니터링
- 긴급삭제 이후 주기적 실시
- 사례회의 및 플랫폼별 대응 전략 수립
- 사이트 수사 의뢰

결과 보고서
- 삭제지원 결과 보고서 발행

2. 피해영상물 유포 전-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선제적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현황분석 및 URL 수집
- 사이트별 모니터링
- 피해영상물·URL 등 확보

2. 수사기관 삭제지원 요청 피해영상물 등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 가해자 소지 피해영상물 등 삭제지원 요청

피해 유형 분류 및 채증
- 지원대상 DB 분류
- URL별 채증

선제적 삭제지원
- 플랫폼별 삭제요청 및 재유포 모니터링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환류
- 범죄양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Ⅱ.

지원 현황

1. 전체 현황
2. 지원 피해자 현황
3. 지원 현황
4.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일러두기

1.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수록된 지원 실적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기관 신고(고소) 또는 법정 유죄판결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피해 내용', '피해영상물' 등의 용어는 법적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서는 법 규정 표기를 제외하고 '피해영상물등'으로 표기
3.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의 자료 인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지원한 피해자의 수
- 2023년 지원 피해자 중 2024년에도 지원이 지속된 경우, 2024년 피해자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건수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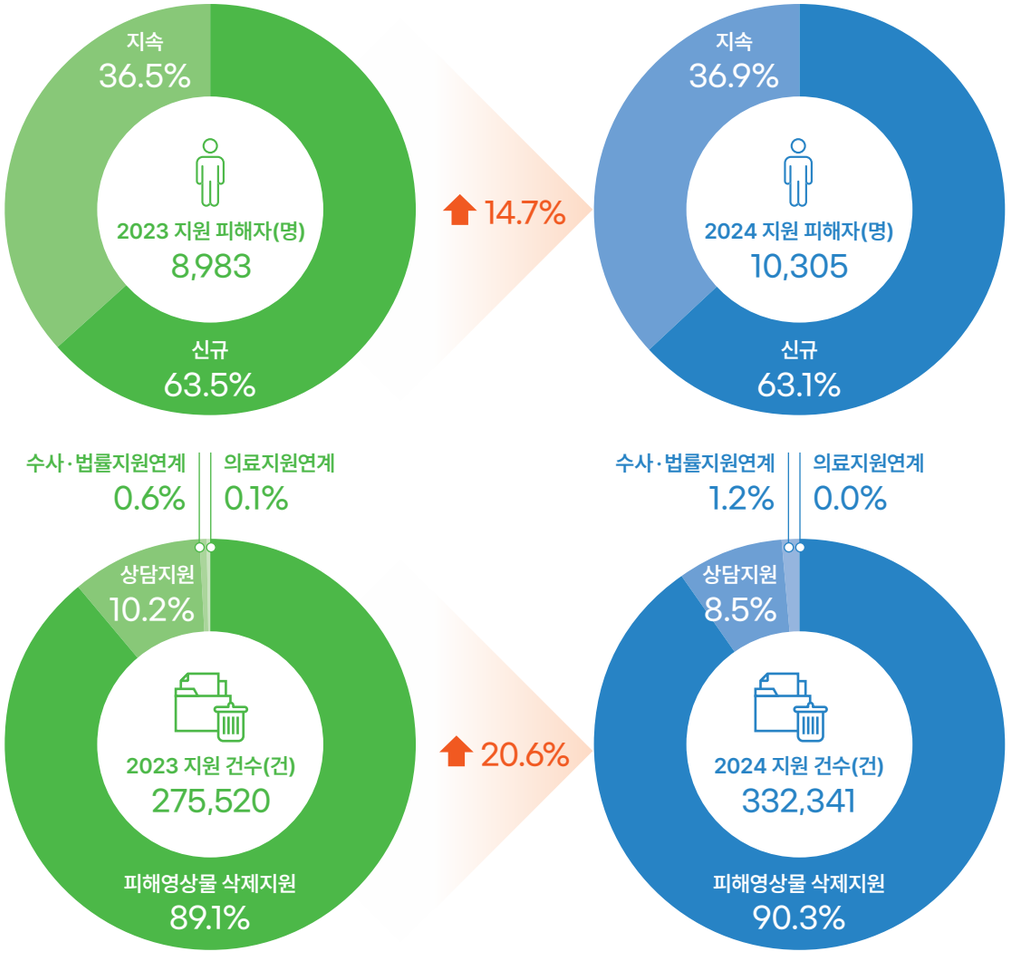
-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 통계 내용은 2024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년 대비 양상이 크게 변화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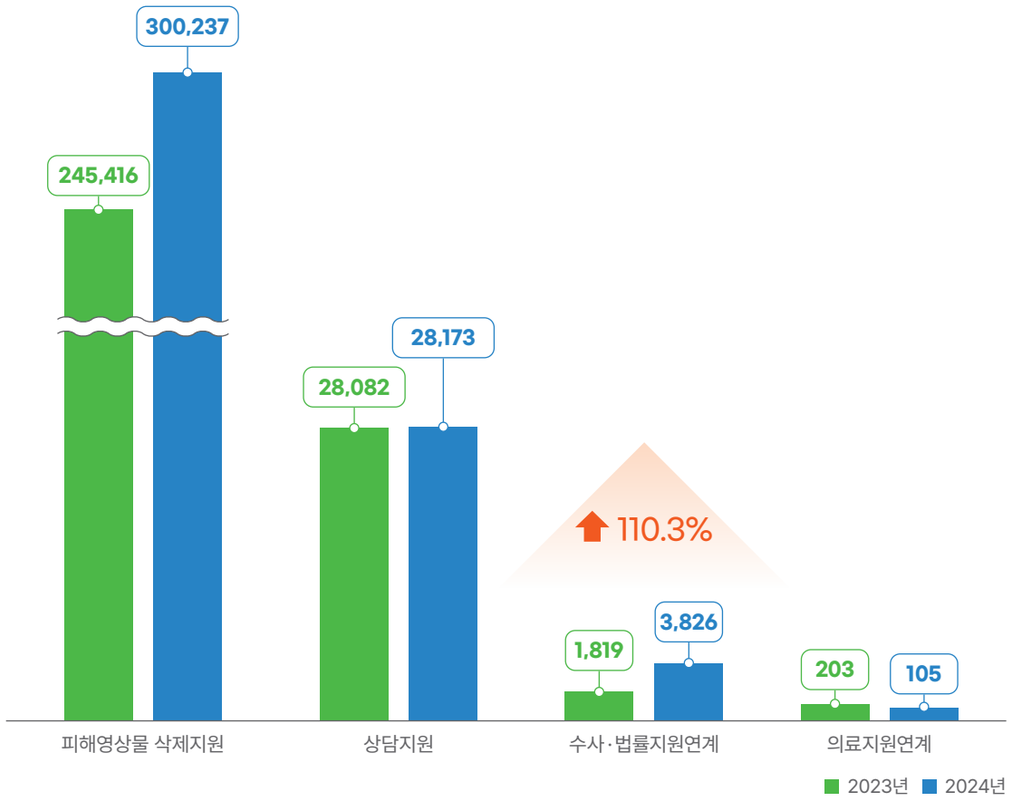
1. 전체 현황

가.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기간	지원 피해자 수(명)			지원 건수(건)				
	계	신규	지속	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23년	8,983 (100.0%)	5,707 (63.5%)	3,276 (36.5%)	275,520 (100.0%)	245,416 (89.1%)	28,082 (10.2%)	1,819 (0.6%)	203 (0.1%)
2024년	10,305 (100.0%)	6,507 (63.1%)	3,798 (36.9%)	332,341 (100.0%)	300,237 (90.3%)	28,173 (8.5%)	3,826 (1.2%)	105 (0.0%)





- 2024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총 10,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 2024년 **지원 건수는 총 332,341건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00,237건(9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지원 28,173건(8.5%), 수사·법률지원연계 3,826건(1.2%), 의료지원연계 105건(0.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센터와 수사기관 간 피해자 연계 창구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수사·법률지원연계 건수가 전년 대비 110.3% 증가**하였습니다.
- 센터는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영상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된 집단 피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에 대한 긴급 삭제지원을 강화하면서, 2024년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하였습니다.

* 집단 피해: 한 사건(사건 번호 기준)의 피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 딥페이크 성착취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성적 이미지와 합성한 편집물

나. 지원유형별 현황

➡ 센터에서 삭제지원 가능한 영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유형별 현황을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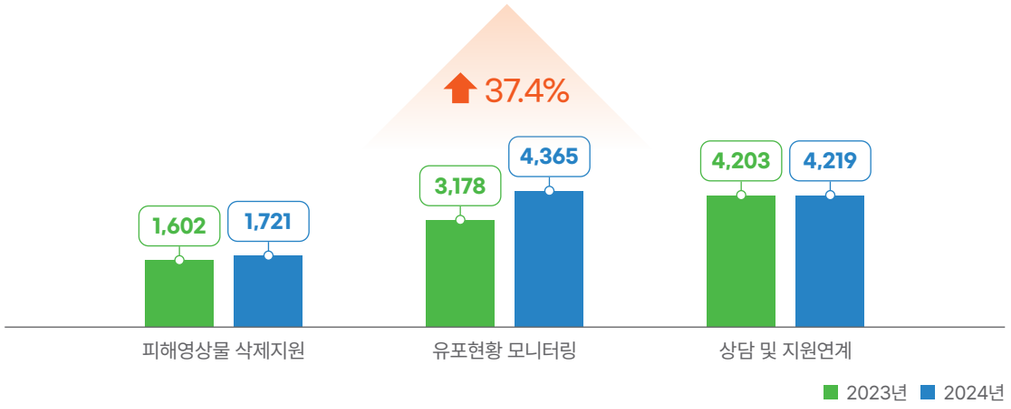
(단위: 명)

기간	지원 피해자 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상담 및 지원연계**
2023년	8,983 (100.0%)	1,602 (17.8%)	3,178 (35.4%)	4,203 (46.8%)
2024년	10,305 (100.0%)	1,721*** (16.7%)	4,365 (42.4%)	4,219 (40.9%)

*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영상물 대상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나 유포현황 모니터링 없이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를 단독으로 지원 받은 경우를 별도 분류함
- 예시1: 원본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포 불안 대처 방법, 치유회복프로그램 연계 등 상담 지원 제공. 추후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으로 이어지기도 함
- 예시2: 지역디성센터로 수사·법률 연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추가 유포에 따른 채증 지원으로 이어지기도 함

*** • 1,274명(74.0%): 초기 인입 단계에서부터 유포가 확인되어 즉시 삭제지원 제공된 피해자
• 447명(26.0%):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 제공된 피해자



- 2024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0,305명의 지원유형을 살펴보면,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4,365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 및 지원연계 4,219명(40.9%), 삭제지원 1,721명(1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4년 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21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4,365명으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하였습니다.
-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 전체 1,721명 중 447명(26.0%)은 센터의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영상물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지원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즉, **2024년 센터가 삭제지원한 피해자 4명 중 1명은 센터의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유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지원 피해자 현황

가. 지원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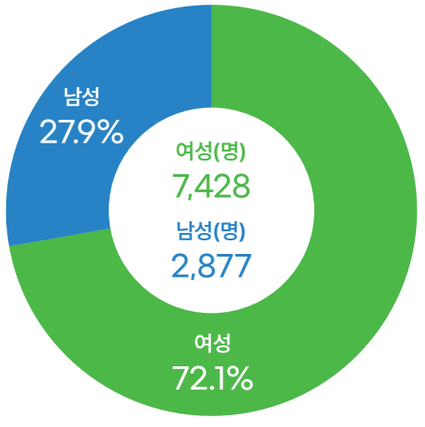
기간	구분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23년	여성	6,663 (74.2%)	8 (0.1%)	1,840 (20.5%)	3,128 (34.8%)	788 (8.8%)	235 (2.6%)	89 (1.0%)	575 (6.4%)
	남성	2,320 (25.8%)	2 (0.0%)	359 (4.0%)	1,389 (15.5%)	280 (3.1%)	131 (1.4%)	135 (1.5%)	24 (0.3%)
	계	8,983 (100.0%)	10 (0.1%)	2,199 (24.5%)	4,517 (50.3%)	1,068 (11.9%)	366 (4.0%)	224 (2.5%)	599 (6.7%)
2024년	여성	7,428 (72.1%)	10 (0.1%)	2,468 (23.9%)	3,326 (32.3%)	1,048 (10.2%)	326 (3.2%)	115 (1.1%)	135 (1.3%)
	남성	2,877 (27.9%)	1 (0.0%)	395 (3.9%)	1,916 (18.6%)	283 (2.7%)	128 (1.2%)	146 (1.4%)	8 (0.1%)
	계	10,305 (100.0%)	11 (0.1%)	2,863 (27.8%)	5,242 (50.9%)	1,331 (12.9%)	454 (4.4%)	261 (2.5%)	143 (1.4%)

*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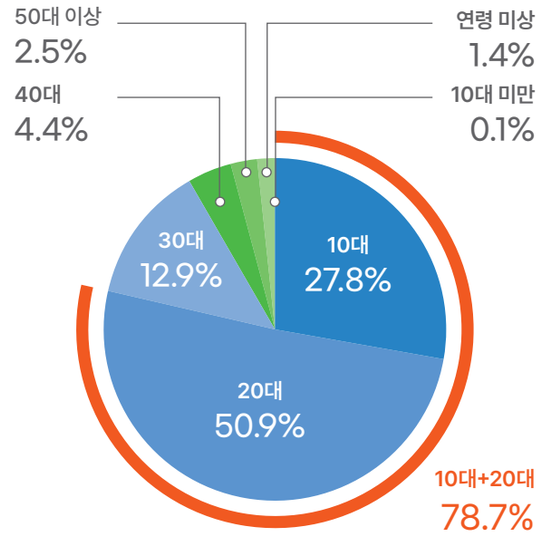
※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 발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집계함

※ 최초 인입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024년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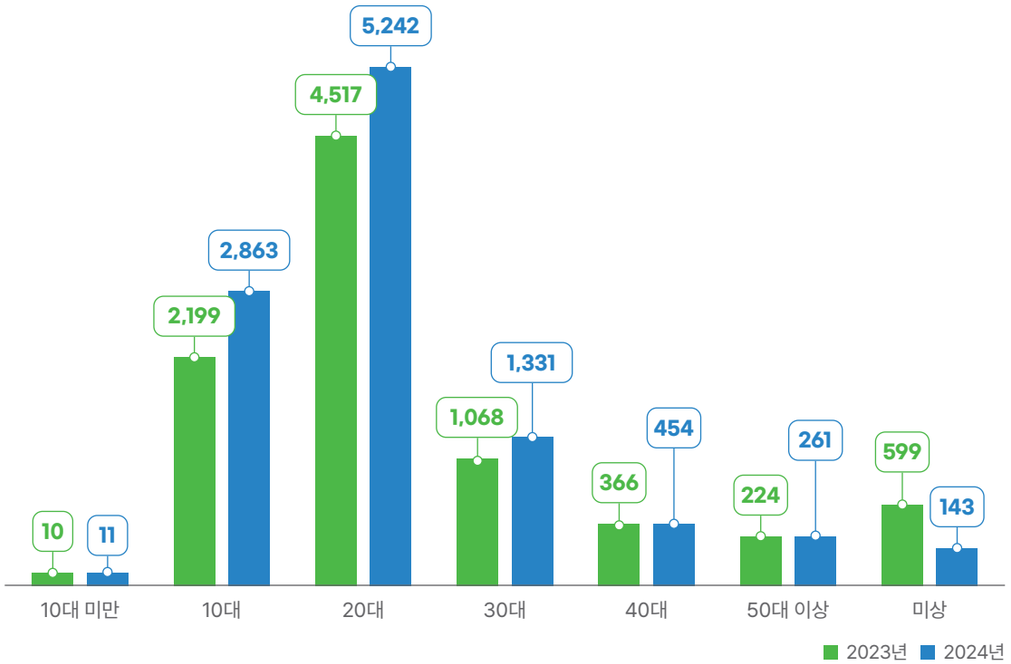


[2024년 연령대별 비율]



- 2024년 전체 피해자 수는 10,305명으로, 여성 피해자는 7,428명(72.1%), 남성 피해자는 2,877명(27.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024년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피해자가 5,242명(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피해자가 2,863명(27.8%), 30대 피해자가 1,331명(12.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8.7%**를 차지하며, 2023년에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주로 10대·20대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며,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특징이 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 피해자 수 비교]



- 10대 미만 피해자는 지난해(10명)와 유사한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연령 미상 피해자는 143명(1.4%)으로, 전년 대비 76.1% 감소하였습니다. 연령 미상 피해자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계된 신원 불상의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등이 포함됩니다.
-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접근성 향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실제 피해 발생 건수 증가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 피해 유형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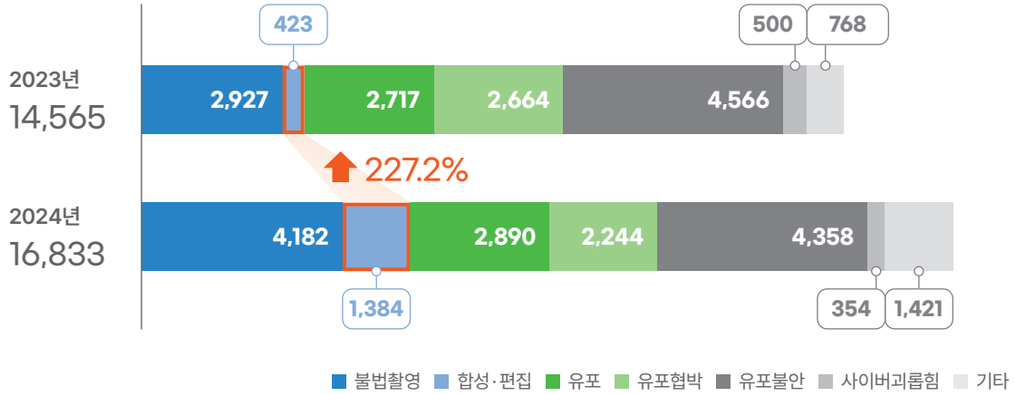
기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3년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2024년	16,833 (100.0%)	4,182 (24.9%)	1,384 (8.2%)	2,890 (17.2%)	2,244 (13.3%)	4,358 (25.9%)	354 (2.1%)	1,421 (8.4%)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피해 유형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 피해자별 호소 피해 내용 중복 집계

※ 피해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 1건으로 간주,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집계
예) 피해자 1인이 '유포' 피해를 두 번 경험한 경우 1건으로 집계,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함께 경험한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 2024년 전체 피해자 수는 10,305명이며, 이들이 경험한 피해 건수는 총 16,833건으로, 1인당 평균 약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 유형의 분포는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961건 증가(227.2%)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2024년 피해 유형 통계에 따르면, 유포불안 피해가 4,358건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는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유포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유형과 예시는 무엇인가요?

피해 유형	예시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합성·편집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비동의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사이버 괴롭힘	•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센터는 피해영상물 확보 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합성·편집,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등의 피해영상물에 대해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피해 유형

2024년 기준 (단위: 명, 건)

연령	피해자 (명)	피해 유형(건)							
		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10대 미만	11	19 (0.1%)	10 (0.2%)	1 (0.1%)	0 (0.0%)	3 (0.1%)	5 (0.1%)	0 (0.0%)	0 (0.0%)
10대	2,863	4,952 (29.4%)	1,299 (31.1%)	640 (46.2%)	601 (20.8%)	622 (27.7%)	1,347 (30.9%)	126 (35.6%)	317 (22.3%)
20대	5,242	8,085 (48.0%)	2,259 (54.0%)	642 (46.4%)	1,341 (46.4%)	1,024 (45.6%)	1,916 (44.0%)	162 (45.8%)	741 (52.1%)
30대	1,331	2,291 (13.6%)	330 (7.9%)	74 (5.3%)	633 (21.9%)	309 (13.8%)	705 (16.2%)	46 (13.0%)	194 (13.7%)
40대	454	841 (5.0%)	142 (3.4%)	16 (1.2%)	175 (6.0%)	158 (7.1%)	251 (5.8%)	11 (3.1%)	88 (6.2%)
50대 이상	261	469 (2.8%)	98 (2.3%)	9 (0.7%)	54 (1.9%)	108 (4.8%)	120 (2.7%)	6 (1.7%)	74 (5.2%)
연령 미상	143	176 (1.1%)	44 (1.1%)	2 (0.1%)	86 (3.0%)	20 (0.9%)	14 (0.3%)	3 (0.8%)	7 (0.5%)
합계	10,305	16,833 (100.0%)	4,182 (100.0%)	1,384 (100.0%)	2,890 (100.0%)	2,244 (100.0%)	4,358 (100.0%)	354 (100.0%)	1,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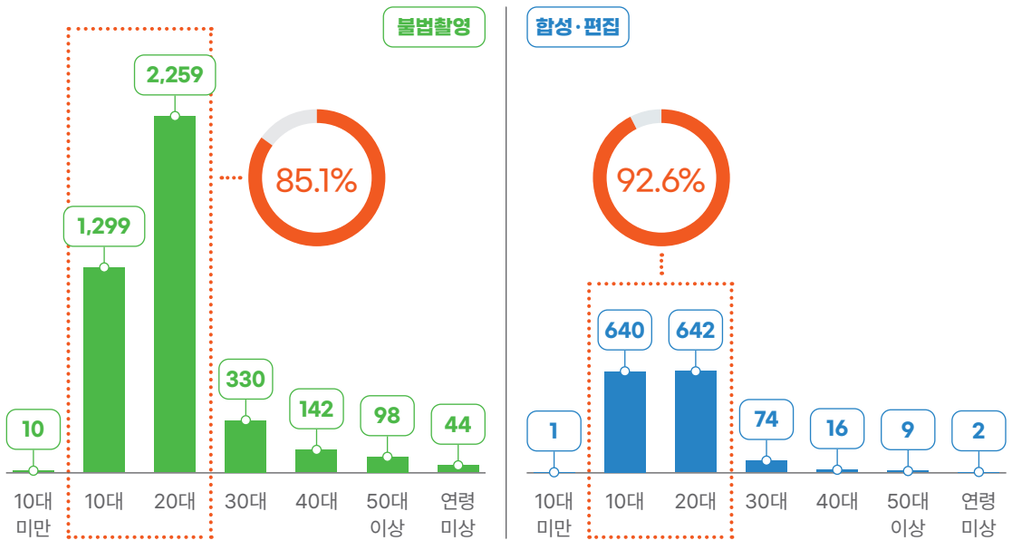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피해 유형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 피해자별 호소 피해 내용 중복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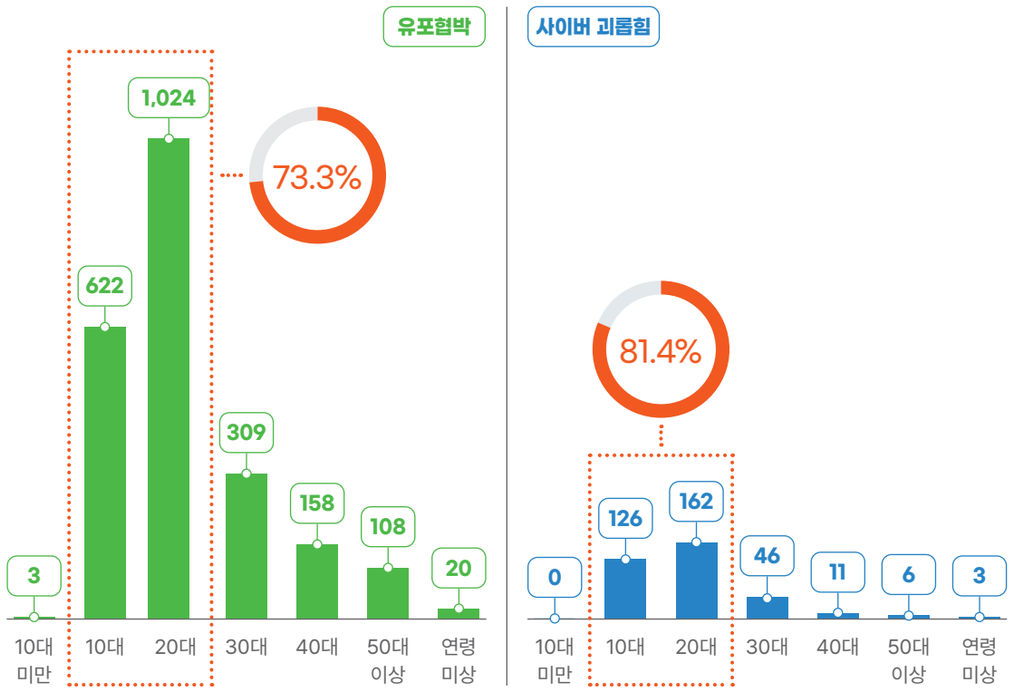
※ 피해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 1건으로 간주,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집계
예) 피해자 1인이 '유포' 피해를 두 번 경험한 경우 1건으로 집계,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함께 경험한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2024년 연령대별 불법촬영 및 합성·편집 비교] (단위: 건)



[2024년 연령대별 유포협박 및 사이버 괴롭힘 비교]

(단위: 건)



- 2024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대 미만, 20대, 연령 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10대 미만과 20대에서는 불법촬영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 미상에서는 유포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피해 건수가 92.6%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주로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이버괴롭힘 피해 또한 10대와 20대 피해 건수가 81.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연령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온라인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면서 언어적 폭력, 비방, 악성 댓글, 신상 유출 등의 사이버괴롭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0대 미만 피해자의 경우, 불법 촬영 피해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한 반면, 유포 피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유포 방식과 환경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국제적 대응으로 인해, 아동 대상 성착취물은 수사망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이나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0대 미만 피해자의 피해영상물 유포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10대 미만 피해자의 유포 피해 비율이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 피해 유형

2024년 기준 (단위: 건)

성별	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여성	11,950 (71.0%)	2,369 (56.6%)	1,337 (96.6%)	2,414 (83.5%)	1,151 (51.3%)	3,233 (74.2%)	318 (89.8%)	1,128 (79.4%)
남성	4,883 (29.0%)	1,813 (43.4%)	47 (3.4%)	476 (16.5%)	1,093 (48.7%)	1,125 (25.8%)	36 (10.2%)	293 (20.6%)
합계	16,833 (100.0%)	4,182 (100.0%)	1,384 (100.0%)	2,890 (100.0%)	2,244 (100.0%)	4,358 (100.0%)	354 (100.0%)	1,421 (100.0%)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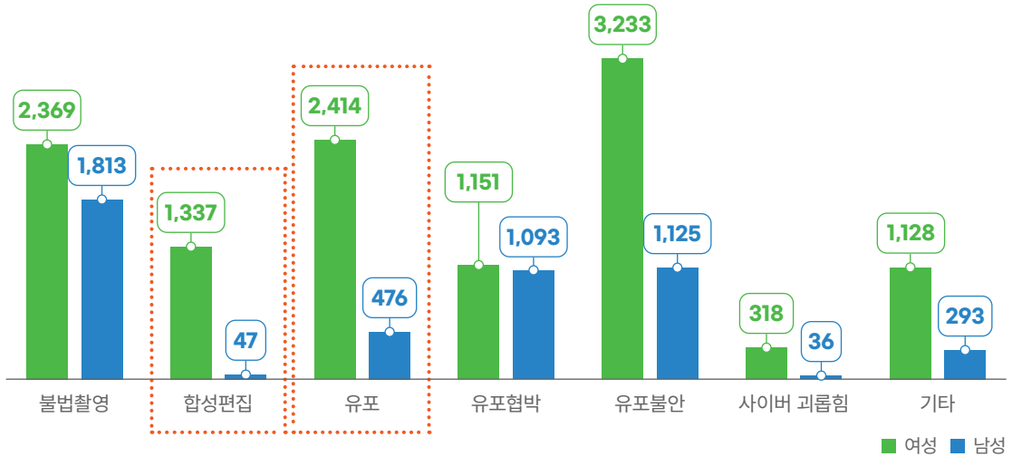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 피해자별 호소 피해 내용 중복 집계

※ 피해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 1건으로 간주,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집계
예) 피해자 1인이 '유포' 피해를 두 번 경험한 경우 1건으로 집계,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함께 경험한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2024년 성별 피해 유형 비교]

(단위: 건)



- 2024년 성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포불안(3,233건)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포(2,414건), 불법촬영(2,369건), 합성·편집(1,337건), 유포협박(1,151건), 사이버괴롭힘(31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남성은 불법촬영(1,813건)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포불안(1,125건), 유포협박(1,093건), 유포(476건), 합성·편집(47건), 사이버괴롭힘(3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포 피해의 경우, 여성이 2,414건(83.5%)으로, 남성 476건(16.5%)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 합성·편집 피해는 여성(1,337건)이 남성(47건)보다 약 28배 많았으며, 이는 주로 여성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딥페이크 기술 등을 통해 합성·편집한 피해영상물이 제작·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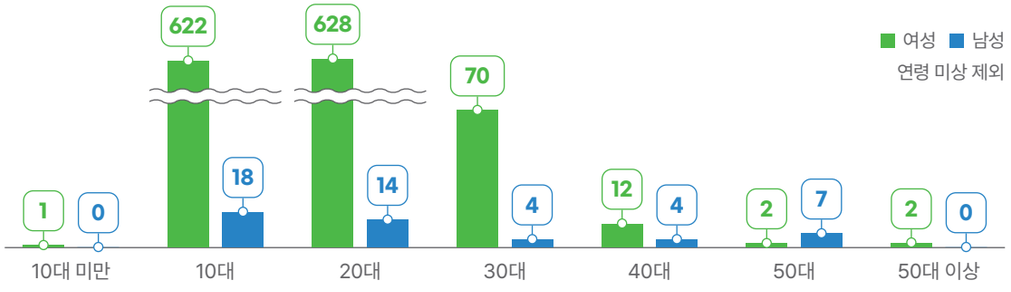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자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신규*	여성	1,059 (95.9%)	1 (0.1%)	572 (51.8%)	413 (37.4%)	61 (5.5%)	10 (0.9%)	1 (0.1%)	1 (0.1%)
	남성	45 (4.1%)	0 (0.0%)	18 (1.6%)	13 (1.2%)	3 (0.3%)	4 (0.4%)	7 (0.6%)	0 (0.0%)
	소계	1,104 (100.0%)	1 (0.1%)	590 (53.4%)	426 (38.6%)	64 (5.8%)	14 (1.3%)	8 (0.7%)	1 (0.1%)
지속**	여성	278 (99.2%)	0 (0.0%)	50 (17.9%)	215 (76.7%)	9 (3.1%)	2 (0.7%)	1 (0.4%)	1 (0.4%)
	남성	2 (0.8%)	0 (0.0%)	0 (0.0%)	1 (0.4%)	1 (0.4%)	0 (0.0%)	0 (0.0%)	0 (0.0%)
	소계	280 (100.0%)	0 (0.0%)	50 (17.9%)	216 (77.1%)	10 (3.5%)	2 (0.7%)	1 (0.4%)	1 (0.4%)
합계	여성	1,337 (96.6%)	1 (0.1%)	622 (44.9%)	628 (45.3%)	70 (5.1%)	12 (1.0%)	2 (0.1%)	2 (0.1%)
	남성	47 (3.4%)	0 (0.0%)	18 (1.3%)	14 (1.1%)	4 (0.2%)	4 (0.2%)	7 (0.6%)	0 (0.0%)
	소계	1,384 (100.0%)	1 (0.1%)	640 (46.2%)	642 (46.4%)	74 (5.3%)	16 (1.2%)	9 (0.7%)	2 (0.1%)

* 당해 연도 신규 피해자 수

** 24년 이전 피해 접수되었으나, 지속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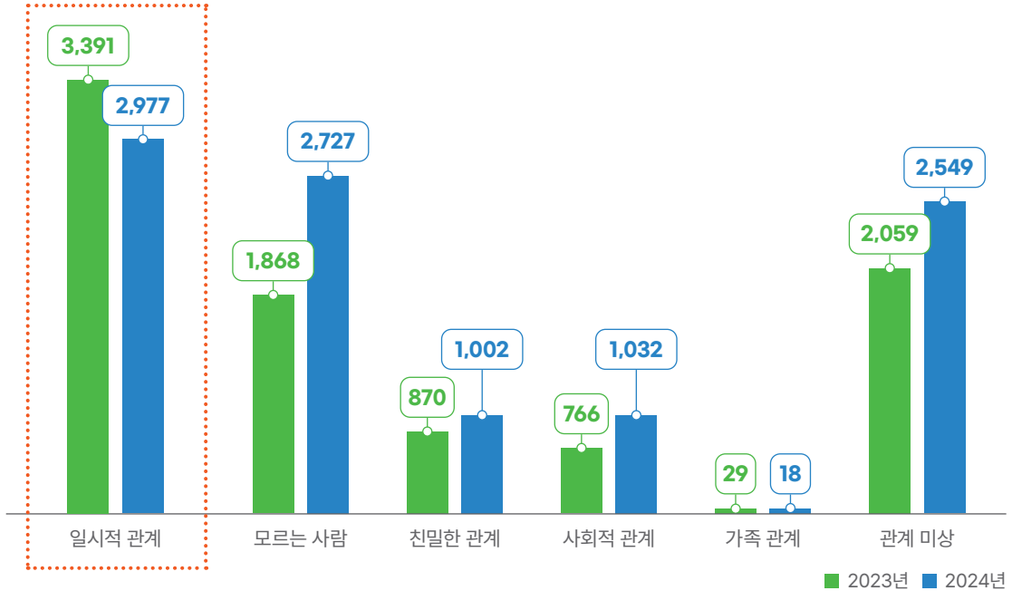
- 합성·편집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총 1,384명으로, 이 중 신규 피해자는 1,104명(여성 1,059명, 남성 45명), 지속 피해자는 280명(여성 278명, 남성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성별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가 96.6%, 남성 피해자가 3.4%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40건, 30대 74건, 40대 16건, 50대 이상 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92.6%를 차지해,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한편, 전체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나,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 피해 사례가 여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기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관계 미상*
2023년	8,983 (100.0%)	3,391 (37.8%)	1,868 (20.8%)	870 (9.7%)	766 (8.5%)	29 (0.3%)	2,059 (22.9%)
2024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2024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채팅 상대, 일회성 만남 등과 같은 **일시적 관계가 2,977명(2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26.5%), 관계 미상(24.7%), 사회적 관계(10.0%), 친밀한 관계(9.7%), 가족 관계(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시적 관계(2,977명)는 2023년보다 41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2,727명)과 관계 미상(2,549명)은 각각 859명, 49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계 미상 건수의 증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과 국외 서버를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포가 증가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수많은 사용자에 의해 2차, 3차로 가공·재유포되면서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계 미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해자 관계 | 분류기준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가족 관계

-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친척·사촌 등 친족

일시적 관계

-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으로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예) 공중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

관계 미상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 유포 피해를 입었으나, 유포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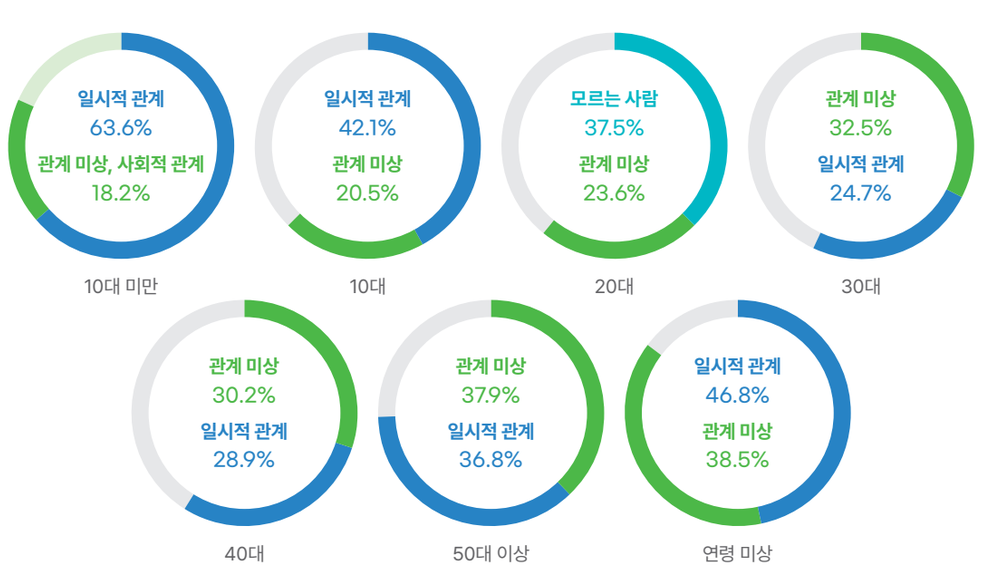
연령대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2024년 기준 (단위: 명)

연령	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관계 미상*
10대 미만	11 (100.0%)	7 (63.6%)	0 (0.0%)	0 (0.0%)	2 (18.2%)	0 (0.0%)	2 (18.2%)
10대	2,863 (100.0%)	1,204 (42.1%)	491 (17.1%)	96 (3.3%)	480 (16.8%)	6 (0.2%)	586 (20.5%)
20대	5,242 (100.0%)	1,143 (21.8%)	1,966 (37.5%)	553 (10.6%)	338 (6.4%)	5 (0.1%)	1,237 (23.6%)
30대	1,331 (100.0%)	329 (24.7%)	189 (14.2%)	241 (18.1%)	135 (10.2%)	4 (0.3%)	433 (32.5%)
40대	454 (100.0%)	131 (28.9%)	49 (10.8%)	91 (20.0%)	46 (10.1%)	0 (0.0%)	137 (30.2%)
50대 이상	261 (100.0%)	96 (36.8%)	25 (9.6%)	17 (6.5%)	21 (8.1%)	3 (1.1%)	99 (37.9%)
연령 미상	143 (100.0%)	67 (46.8%)	7 (4.9%)	4 (2.8%)	10 (7.0%)	0 (0.0%)	55 (38.5%)
합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1순위 2순위



- 연령대별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공통적으로 일시적 관계, 관계 미상, 모르는 사람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2024년 연령대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미상을 제외하면 10대 미만과 10대에서는 일시적 관계가 총 1,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에서는 모르는 사람 1,966건(37.5%), 30대 이상(30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관계 미상이 각각 433건(32.5%), 137건(30.2%), 99건(37.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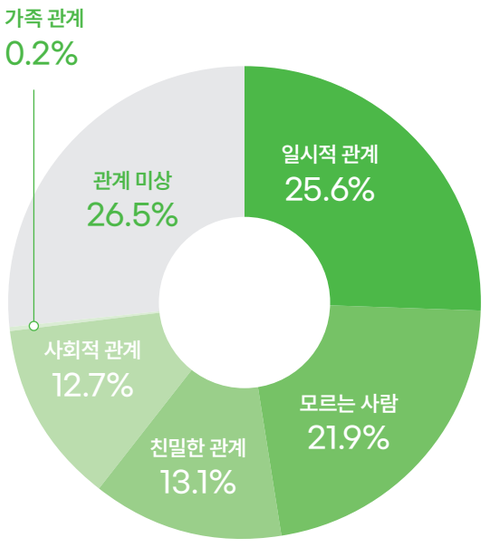
성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2024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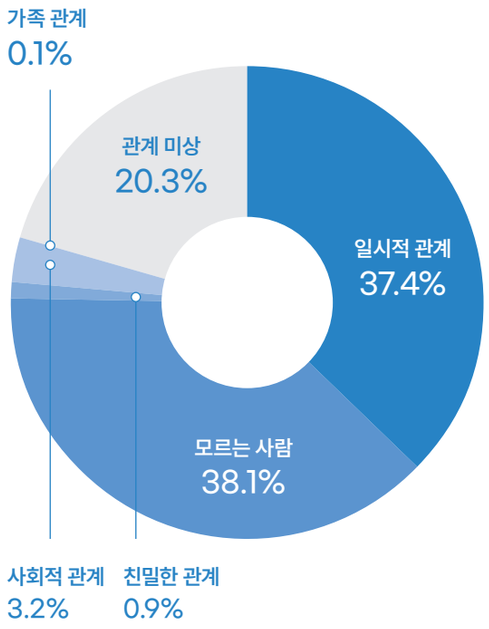
성별	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관계 미상*
여성	7,428 (100.0%)	1,901 (25.6%)	1,630 (21.9%)	975 (13.1%)	939 (12.7%)	17 (0.2%)	1,966 (26.5%)
남성	2,877 (100.0%)	1,076 (37.4%)	1,097 (38.1%)	27 (0.9%)	93 (3.2%)	1 (0.1%)	583 (20.3%)
합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024년 여성 피해자-가해자 관계]



[2024년 남성 피해자-가해자 관계]



- 2024년 성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관계 미상(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시적 관계(25.6%), 모르는 사람(21.9%), 친밀한 관계(13.1%), 사회적 관계(12.7%), 가족 관계(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남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38.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시적 관계(37.4%), 관계 미상(20.3%), 사회적 관계(3.2%), 친밀한 관계(0.9%), 가족 관계(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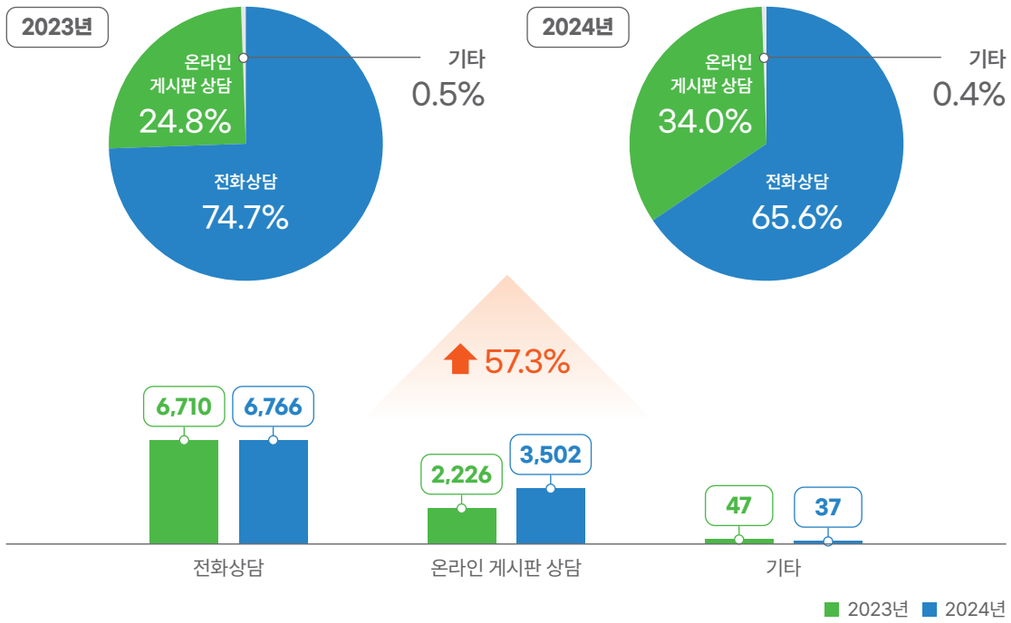
3. 지원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 게시판 상담	기타*
2023년	8,983 (100.0%)	6,710 (74.7%)	2,226 (24.8%)	47 (0.5%)
2024년	10,305 (100.0%)	6,766 (65.6%)	3,502 (34.0%)	37 (0.4%)

* 전화, 온라인게시판 상담을 제외한 센터방문, 이메일 등 기타 경로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 2024년 최초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전화상담이 6,766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3,502명(34.0%)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화상담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전년 대비 57.3% 증가하여 비대면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센터와 수사기관,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게시판 상담 이용이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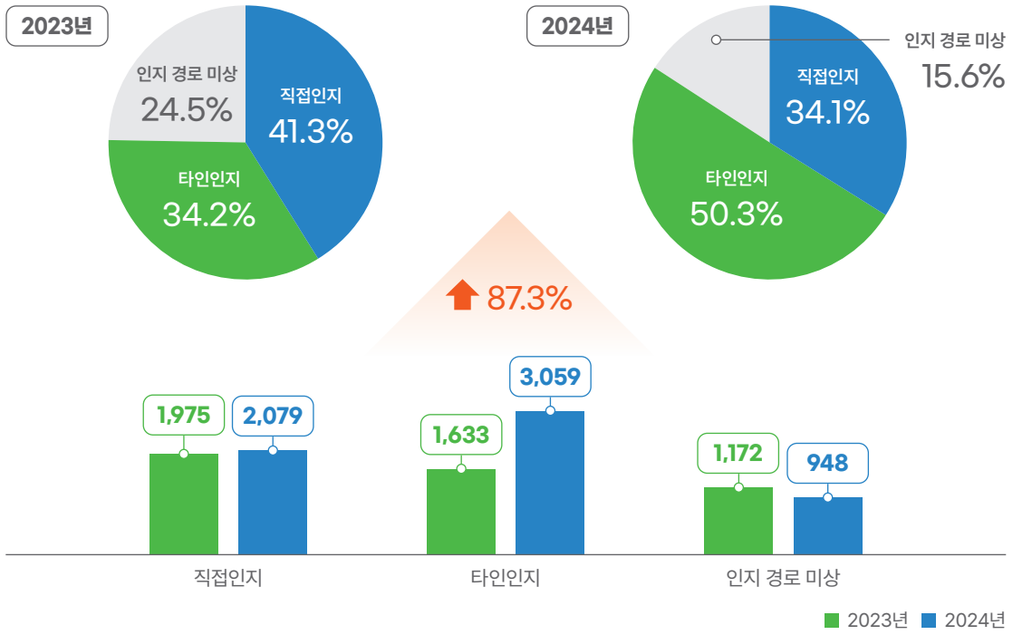
나. 피해 인지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인지 경로 미상*
2023년	4,780 (100.0%)	1,975 (41.3%)	1,633 (34.2%)	1,172 (24.5%)
2024년	6,086 (100.0%)	2,079 (34.1%)	3,059 (50.3%)	948 (15.6%)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 경로



- 2024년 센터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6,086명)의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2,079명(34.1%), 타인이 인지한 경우는 3,059명(50.3%)으로 타인 인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직접 인지 사례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타인 인지 사례는 87.3% 증가하여 피해 신고 과정에서 타인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타인 인지 비율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피해 접수 증가 △ 피해 지원기관 접근성 향상 △ 수사기관 연계를 통한 신원 미확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 대응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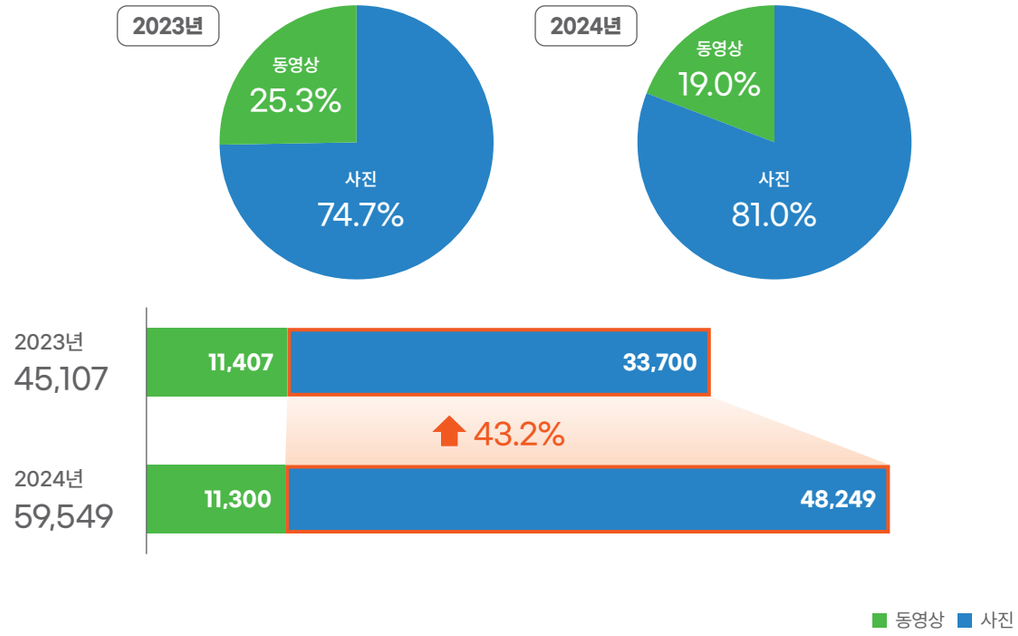
다. 피해영상물 유형

(단위: 개)

기간	합계	동영상	사진
2023년	45,107 (100.0%)	11,407 (25.3%)	33,700 (74.7%)
2024년	59,549 (100.0%)	11,300 (19.0%)	48,249 (81.0%)

※ 동일한 피해영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될 수 있어, 삭제지원 건수와 피해영상물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삭제 요청한 피해영상물과 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하여 확보한 피해영상물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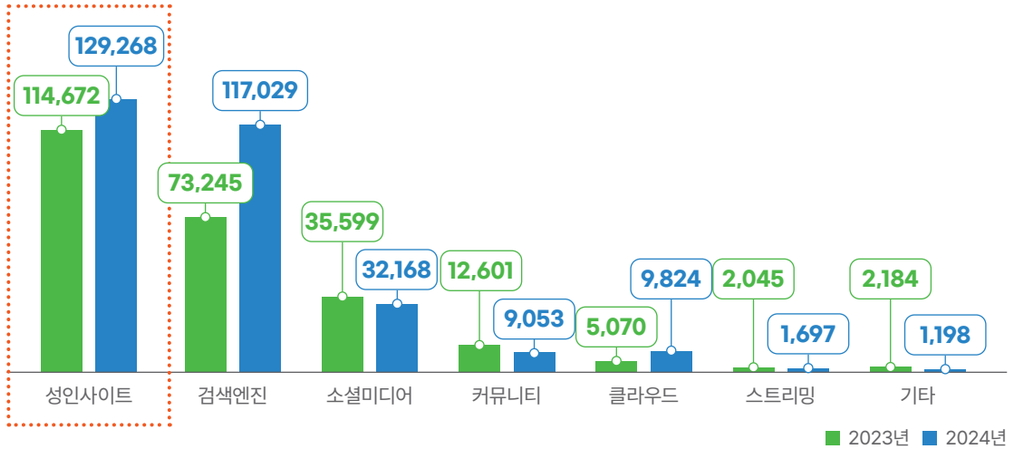
- 센터는 특정 성인사이트의 광고 또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 일상 사진과 합성된 영상 등 편집·가공된 피해영상물을 모두 확보하여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영상물 총 59,549개 중 동영상은 11,300개(19.0%)로 전년 대비 107개 감소한 반면, 사진은 48,249개(81.0%)로 전년 대비 14,549개 증가했습니다.**
- 피해영상물 중 사진 개수의 증가는 허위영상물 피해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위영상물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물리적 공간이나 실제 촬영 없이도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무제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은 영상보다 적은 리소스와 시간으로 제작할 수 있어 피해 사진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 사이트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타*
2023년	245,416 (100.0%)	114,672 (46.7%)	73,245 (29.9%)	35,599 (14.5%)	12,601 (5.1%)	5,070 (2.1%)	2,045 (0.8%)	2,184 (0.9%)
2024년	300,237 (100.0%)	129,268 (43.0%)	117,029 (39.0%)	32,168 (10.7%)	9,053 (3.0%)	9,824 (3.3%)	1,697 (0.6%)	1,198 (0.4%)

* 웹하드, P2P, 블로그, 아카이브 등



- 2024년 **총 삭제지원 건수는 300,237건**으로, 2023년(245,416건) 대비 **22.3% 증가**했습니다.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129,268건(4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검색엔진 117,029건(39.0%), 소셜미디어 32,168건(10.7%), 클라우드 9,824건(3.3%), 커뮤니티 9,053건(3.0%), 스트리밍 1,697건(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인사이트(43.0%)는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국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성인사이트를 통한 피해영상물의 유포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반면, 커뮤니티 삭제지원 건수는 12,601건에서 9,053건으로 28.2%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강화와 일부 커뮤니티의 정책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클라우드 삭제지원 건수는 9,824건으로 전년 대비 93.8% 증가했습니다. 이는 폐쇄형 플랫폼에서 피해영상물 유포가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비공개 그룹 대화방이나 공유 링크를 이용해 피해영상물을 유포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일이 자동 삭제되는 점을 악용해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특성상 동일한 영상물이 여러 개의 링크로 생성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백업 기능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유포가 가능해 피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플랫폼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플랫폼 유형 | 분류기준

성인사이트	• 불법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검색엔진	•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 개인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커뮤니티	• 공통 주제를 공유하며 이용자 간 소통하는 플랫폼 • 이미지 업로드·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팅 사이트
클라우드	• 중앙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트리밍	•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웹하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P2P	• 토렌트 등 P2P(Peer-to-peer Network)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블로그	• 검색엔진 내 개인별 온라인 공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카이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를 영구 보존하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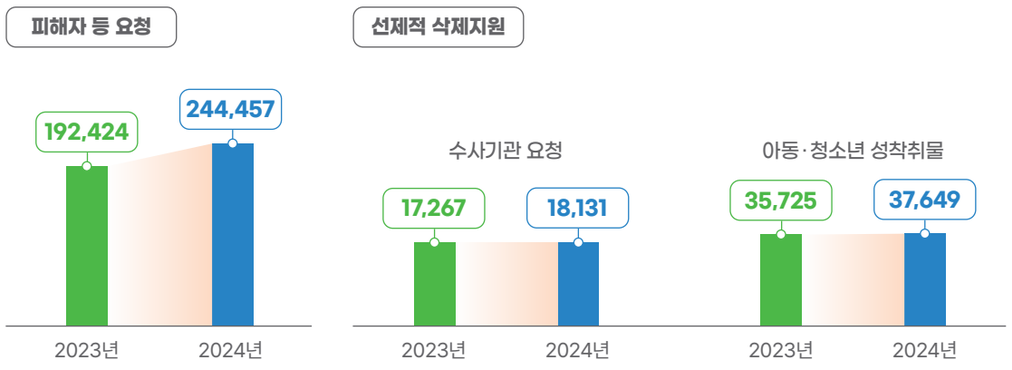
마.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선제적 삭제지원		
			소계	수사기관 요청* (제3항 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3항 제2호)
2023년	245,416 (100.0%)	192,424 (78.4%)	52,992 (21.6%)	17,267 (7.0%)	35,725 (14.6%)
2024년	300,237 (100.0%)	244,457 (81.4%)	55,780 (18.6%)	18,131 (6.0%)	37,649 (12.6%)

* 수사기관 요청(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1호)의 선제적 삭제지원 건수는 신원 불상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건수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2호)의 선제적 삭제지원은 피해자 수에는 미포함, 삭제지원 건수에는 포함



-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지원요청에 따른 피해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선제적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센터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24년 총 삭제지원 건수는 300,237건이며, 이 중 피해자 등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은 244,457건(81.4%), 선제적 삭제지원은 55,780건(18.6%)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피해자 등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 건수는 192,424건에서 244,457건으로 27.0% 증가했으며,** 전체 삭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8.4%에서 81.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적극 홍보를 통한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상담 및 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 △ 피해자의 피해 지원 인식 향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한편, **선제적 삭제지원 건수는 52,992건에서 55,780건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전체 삭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6%에서 18.6%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에 비해 지원 건수는 2,788건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선제적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 피해영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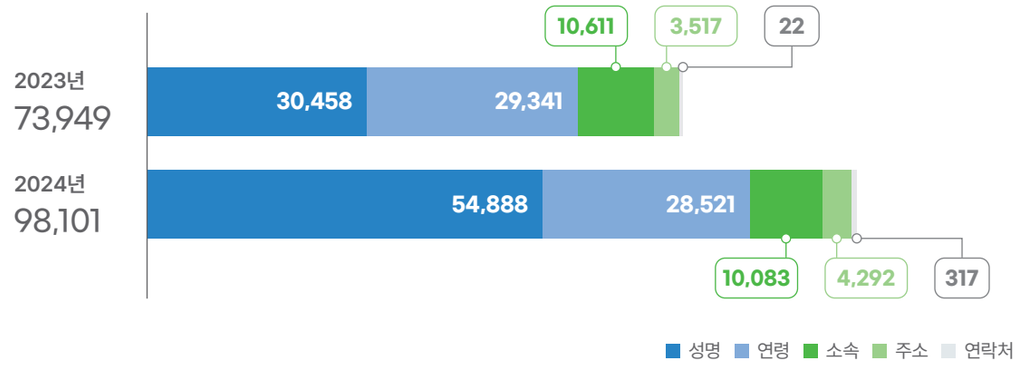
기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개인정보 동반유출	개인정보 유형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2023년	245,416 (100.0%)	57,082 (23.3%)	73,949 (100.0%)	30,458 (41.2%)	29,341 (39.7%)	10,611 (14.3%)	3,517 (4.8%)	22 (0.0%)
2024년	300,237 (100.0%)	77,652 (25.9%)	98,101 (100.0%)	54,888 (55.9%)	28,521 (29.1%)	10,083 (10.3%)	4,292 (4.4%)	317 (0.3%)

* 유포된 게시물별 개인정보 유출 내역 중복 집계

※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확인되어 삭제 지원한 실적임

[개인정보 유출 유형 비교]

(단위: 건)



- 2024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300,237건 중 **77,652건(25.9%)이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된 사례**로, 삭제지원 4건 중 1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정보 동반 유출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36.0%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4년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성명이 54,888건(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령 28,521건(29.1%), 소속 10,083건(10.3%), 주소 4,292건(4.4%), 연락처 317건(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주소 및 연락처 유출 건수의 증가는 물리적 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부터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삭제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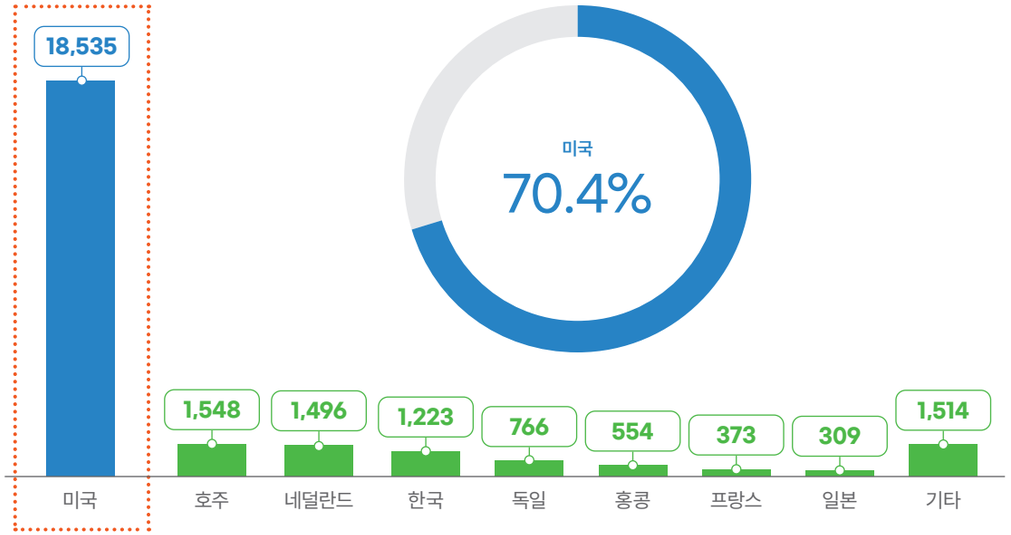
가. 수집 사이트(도메인) 서버 국가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건)

국가	합계	미국	호주	네덜란드	한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일본	기타*
사이트 수 (비율)	26,318 (100.0%)	18,535 (70.4%)	1,548 (5.9%)	1,496 (5.7%)	1,223 (4.6%)	766 (2.9%)	554 (2.1%)	373 (1.4%)	309 (1.2%)	1,514 (5.8%)

*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 센터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계함



- 2018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6,31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70.4%)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 미국 내 도메인 및 서버 운영의 용이성 △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서비스의 집중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그 외 주요 서버 위치는 호주(5.9%), 네덜란드(5.7%), 한국(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불법 성인사이트는 국외 서버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국내법 집행을 회피하는 동시에, 국가별 콘텐츠 규제 차이를 이용해 법적 제재가 약한 국가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통계 결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국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서버 운영국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2023년	2024년
건수	6,867	165	6,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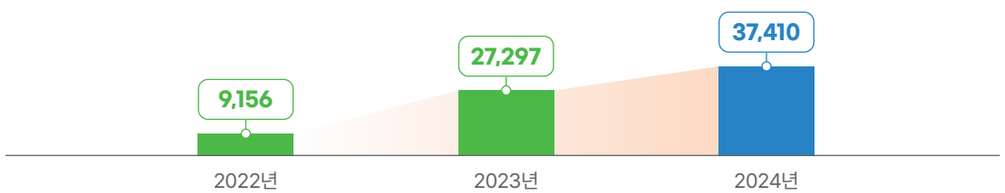
- 센터는 2023년부터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시스템인 '사이버 팁라인(CyberTipline)' 운영
- 2024년 7월, 센터와 미국 NCMEC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삭제지원이 공식화되었으며, 센터는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계정을 확보하여 삭제지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자료(CSAM)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고,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미국의 국가적 신고 시스템
- 2024년 국제협력 삭제지원 건수는 총 6,702건으로, 협력 채널을 구축한 2023년 165건 대비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 NCMEC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73,863	9,156	27,297	37,410

※ 해외서버 기반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 호스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명백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불법성증명공문(근거법, 수사중인 사건번호, URL) 발송



- 센터는 2022년부터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신고된 명백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불법성증명공문을 통지하여 해당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건수는 37,410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문 생성 및 통지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이며, 동시에 국외 서버 기반 삭제 불응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공문 통지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록

1. 피해지원 우수사례
2.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문기관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4. 통계자료

1. 피해지원 우수사례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공백 최소화 : **군과의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

피해 지원의 핵심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백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와 유포 현황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기관이 개입해 피해 영상 원본, 유포 게시물 URL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집단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 지원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범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사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앙 디성센터는 즉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연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성센터는 군수사단으로부터 피해영상물 원본과 유포 게시물 URL을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신속한 상담과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국방부와 함께 군 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절차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내 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사례는 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A씨는 처음에 부대 동료로부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료가 보낸 캡처 이미지 외에는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수사단과 중앙 디성센터 간의 피해자 연계를 통해 피해영상물 원본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고, 곧바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피해영상물은 일상 사진에 성적 노출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이모티콘) 형태로 제작되어, 광범위한 재유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이 제작 및 유통된 스티커 카탈로그 사이트를 찾아냈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즉각 삭제를 요청하여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중앙 디성센터는 A씨를 근무지 인근의 지역 디성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가 '지원 방법을 몰라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국 지역 디성센터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 보다 쉽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수사기관 협력 및 국제 공조 :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불법 성인사이트를 통해 피해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다년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삭제 조치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개별 피해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영상 유포 경로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검거를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등 국제수사기관과 원활히 공조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제공조 수사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다수의 사이트를 폐쇄하여 피해영상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집중·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외 서버를 이용하고, 운영자 역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수사 참여를 독려하여 수사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8개의 불법 성인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삭제가 안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 **다른 사이트들도 폐쇄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여요.**
> **언젠가 제 영상들이 전부 삭제되는 날이 오겠죠?**
>
> - 피해자 상담 내용 中 -

중앙 디성센터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상',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디성센터는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입 차단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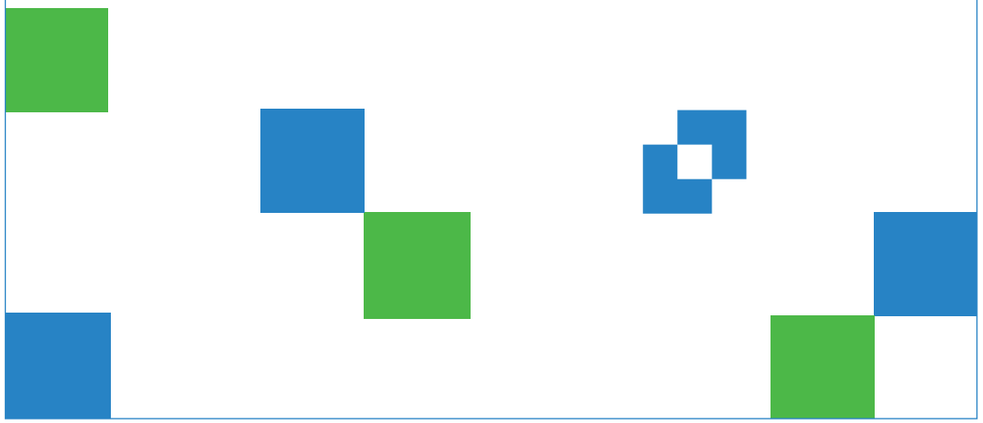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는 주로 채팅앱,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므로, 온라인상의 성착취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 기술 등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 또는 '의심' 정보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 없이는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신고 조치를 수행해왔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동일한 게시자가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게시하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사본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반복 게시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는 반복 게시자의 정보와 채증 자료를 매월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료 수집 기준을 정비하여 수사 연계의 유효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반복 게시자 284명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그중 약 3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한 피해지원을 넘어, 성착취 피해로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한 성과입니다.

더불어, 중앙 디성센터는 정기적인 수사 협업과 함께 신종 성착취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던 당시, 피해영상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125건의 수사 의뢰 중 117건이 수사 하달되었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운영자가 구속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 디성센터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

국외 불응 사이트 대응 강화 :
국제공조 및 삭제지원 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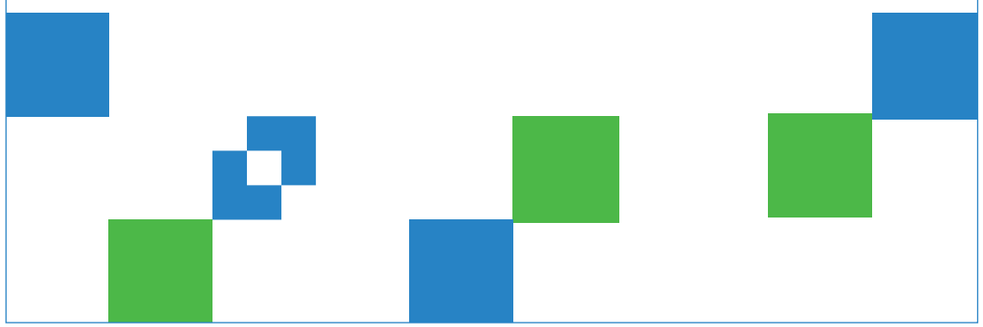
중앙 디성센터는 국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응 사이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신속한 삭제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7월, 중앙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계정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65건에 불과하던 국제공조 삭제지원 건수가 2024년에는 6,702건으로 약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앙 디성센터의 국제협력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 디성센터의 역할이 주로 해외 기관에 삭제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해외 기관에서 삭제 협조를 요청해올 만큼 삭제지원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만의 피해지원 기관(twncii)으로부터 삭제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 디성센터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영상물이 성공적으로 삭제 조치됨으로써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 디성센터가 국제적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영상물의 실질적인 삭제 조치를 확대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허위영상물 유포·확산 방지 :
전담 대응팀 운영으로 피해자 신속 지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2024년 8월, 급속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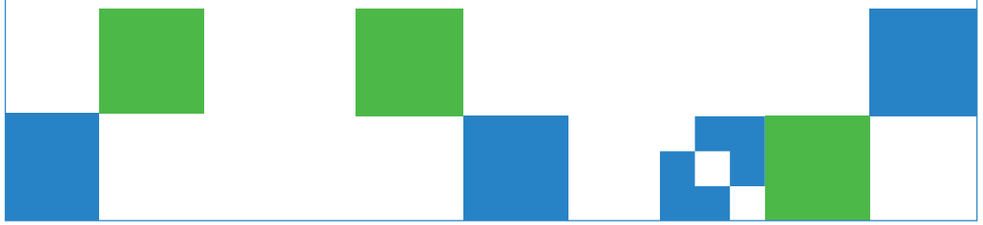
전담 대응팀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365일 피해 접수 및 상담 체계 운영 △ 접수 즉시 피해영상물 유포 현황 파악 △ 피해자 맞춤형 지원 제공 △ 불법성증명 공문 발송을 통한 삭제요청 △ 딥페이크 성착취물 주요 유포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집중적인 삭제지원 및 수사 의뢰 등을 실시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별도의 신고 창구를 추가로 확보하여 긴급 삭제지원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성착취물이 신속히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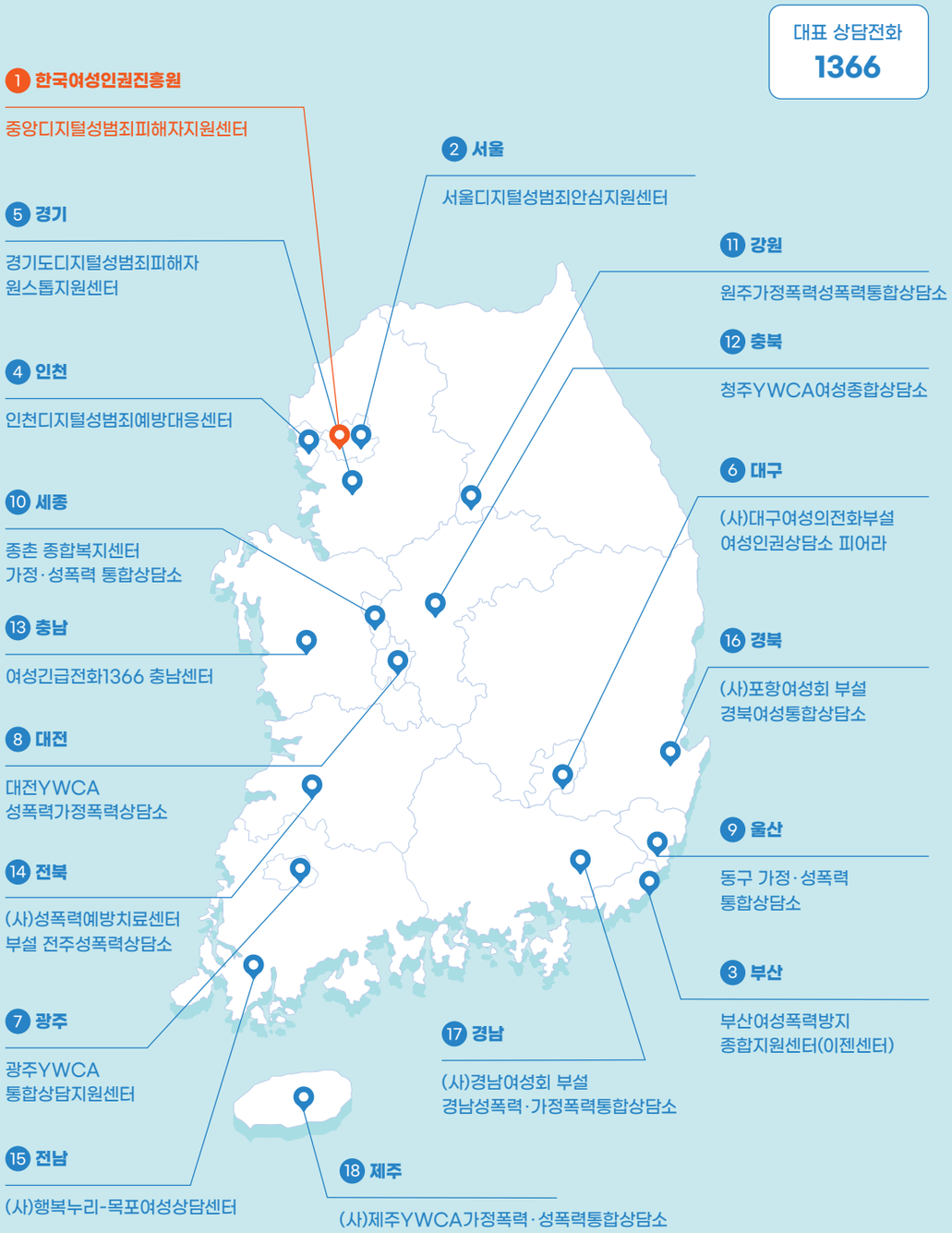
중앙 디성센터는 신규 합성·편집 피해 접수자의 연령대 분석을 통해 주요 피해층인 10대 청소년 대상 상담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고, 10~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디성센터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유포 피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여 검찰, 경찰,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24.9.)하였으며, 교육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허위영상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사·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문기관



구분	운영기관	연락처
1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02-735-8994
2 서울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8150382.or.kr 02-815-0382
3 부산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digital.egen.or.kr 051-802-2081
4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onestop5170.kr 032-517-5170
5 경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majubom.kr 1544-9112
6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dwhotline.or.kr 053-215-6487
7 광주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gjywcafc.or.kr/ko/counsel 062-672-1355
8 대전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djywca.or.kr 042-255-0078
9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usfemi.or.kr 052-252-8247
10 세종	종촌 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sejongsds.or.kr 044-866-1366
11 강원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wjdsvc.com 033-765-1366
12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i-web.kr/cjwomen 043-267-3006
13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chungnam1366.or.kr 041-1366
14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svpcc.net/html/digital.html 063-236-1366
15 전남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mokpowomen.or.kr 061-283-4510
16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phwomen.org 054-284-0404
17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blog.naver.com/sangdamso8400 055-244-9009
18 제주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woman3040.or.kr 064-744-8994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관부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표 상담전화 1366**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kocsc.or.kr**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수사 	•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police.go.kr)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과정 | 신고접수 ➡ 접수 문자 수신 ➡ 담당자 배정 ➡ 수사 담당자 연락**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사항

- 피해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요청 시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녹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무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관부처
심리지원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전문시설 연계** **순찰 강화 등**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률지원 	•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확보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kcva.or.kr** 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법무부
주거지원 	•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 쉼터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4. 통계자료

일러두기

기준일

- 2018년: 2018.4.30.~2018.12.31. (8개월)
- 2019년: 2019.1.1.~2019.12.31. (12개월)
- 2020년: 2020.1.1.~2020.12.31. (12개월)
- 2021년: 2021.1.1.~2021.12.31. (12개월)
- 2022년: 2022.1.1.~2022.12.31. (12개월)
- 2023년: 2023.1.1.~2023.12.31. (12개월)
- 2024년: 2024.1.1.~2024.12.31. (12개월)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지원한 피해자 명수
- 2023년 지원 피해자 중 2024년에도 지원이 지속된 경우, 2024년 피해자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건수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1. 전체 현황

가.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기간	지원 피해자 수(명)	지원 건수(건)				
		합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1,315	33,921(100.0%)	28,879(85.1%)	4,787(14.1%)	203(0.6%)	52(0.2%)
2019년	2,087	101,378(100.0%)	95,083(93.8%)	5,735(5.7%)	500(0.5%)	60(0.1%)
2020년	4,973	170,697(100.0%)	158,760(93.0%)	11,452(6.7%)	445(0.3%)	40(0.02%)
2021년	6,952	188,083(100.0%)	169,820(90.3%)	17,456(9.3%)	708(0.4%)	99(0.1%)
2022년	7,979	234,560(100.0%)	213,602(91.1%)	19,259(8.2%)	1,525(0.6%)	174(0.1%)
2023년	8,983	275,520(100.0%)	245,416(89.1%)	28,082(10.2%)	1,819(0.6%)	203(0.1%)
2024년	10,305	332,341(100.0%)	300,237(90.3%)	28,173(8.5%)	3,826(1.2%)	105(0.0%)

나. 지원유형별 현황

➡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영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피해자 수를 집계함

(단위: 명)

기간	합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상담 및 지원연계**
2018년	1,315(100.0%)	241(18.3%)	-	1,074(81.7%)
2019년	2,087(100.0%)	459(22.0%)	66(3.2%)	1,563(74.9%)
2020년	4,973(100.0%)	841(16.9%)	967(19.4%)	3,165(63.6%)
2021년	6,952(100.0%)	1,028(14.8%)	1,761(25.3%)	4,163(59.9%)
2022년	7,979(100.0%)	1,264(15.8%)	2,646(33.2%)	4,069(51.0%)
2023년	8,983(100.0%)	1,602(17.8%)	3,178(35.4%)	4,203(46.8%)
2024년	10,305(100.0%)	1,721(16.7%)	4,365(42.4%)	4,219(40.9%)

*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영상물 대상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나 유포현황 모니터링 없이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를 단독으로 지원 받은 경우를 별도 분류함

※ 여기에는 유포 불안으로 인해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포함되며, 예를 들어 원본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특정 장소(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등과 관련한 대처 방법 상담이 포함될 수 있음

2. 지원 피해자 현황

가. 지원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합계	10대 (10대 미만 포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18년	여성	1,106 (84.1%)	95 (7.2%)	218 (16.6%)	98 (7.5%)	18 (1.4%)	20 (1.5%)	657 (50.0%)
	남성	209 (15.9%)	16 (1.2%)	33 (2.5%)	11 (0.8%)	16 (1.2%)	5 (0.4%)	128 (9.7%)
	계	1,315 (100.0%)	111 (8.4%)	251 (19.1%)	109 (8.3%)	34 (2.6%)	25 (1.9%)	785 (59.7%)
2019년	여성	1,832 (87.8%)	288 (13.8%)	463 (22.2%)	148 (7.1%)	33 (1.6%)	22 (1.1%)	878 (42.1%)
	남성	255 (12.2%)	33 (1.6%)	41 (2.0%)	19 (0.9%)	17 (0.8%)	10 (0.5%)	135 (6.5%)
	계	2,087 (100.0%)	321 (15.4%)	504 (24.1%)	167 (8.0%)	50 (2.4%)	32 (1.5%)	1,013 (48.5%)
2020년	여성	4,047 (81.4%)	1,007 (20.2%)	863 (17.4%)	267 (5.4%)	77 (1.5%)	36 (0.7%)	1,797 (36.1%)
	남성	926 (18.6%)	197 (4.0%)	189 (3.8%)	65 (1.3%)	57 (1.1%)	51 (1.0%)	367 (7.4%)
	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87 (1.7%)	2,164 (43.5%)
2021년	여성	5,109 (73.5%)	1,194 (17.2%)	1,090 (15.7%)	367 (5.3%)	91 (1.3%)	42 (0.6%)	2,325 (33.4%)
	남성	1,843 (26.5%)	287 (4.1%)	371 (5.3%)	104 (1.5%)	81 (1.2%)	96 (1.4%)	904 (13.0%)
	계	6,952 (100.0%)	1,481 (21.3%)	1,461 (21.0%)	471 (6.8%)	172 (2.5%)	138 (2.0%)	3,229 (46.4%)
2022년	여성	6,007 (75.3%)	1,211 (15.2%)	1,093 (13.7%)	430 (5.4%)	131 (1.7%)	51 (0.6%)	3,091 (38.7%)
	남성	1,972 (24.7%)	212 (2.6%)	357 (4.5%)	104 (1.3%)	65 (0.8%)	71 (0.9%)	1,163 (14.6%)
	계	7,979 (100.0%)	1,423 (17.8%)	1,450 (18.2%)	534 (6.7%)	196 (2.5%)	122 (1.5%)	4,254 (53.3%)
2023년	여성	6,663 (74.2%)	1,848 (20.6%)	3,128 (34.8%)	788 (8.8%)	235 (2.6%)	89 (1.0%)	575 (6.4%)
	남성	2,320 (25.8%)	361 (4.0%)	1,389 (15.5%)	280 (3.1%)	131 (1.4%)	135 (1.5%)	24 (0.3%)
	계	8,983 (100.0%)	2,209 (24.6%)	4,517 (50.3%)	1,068 (11.9%)	366 (4.0%)	224 (2.5%)	599 (6.7%)
2024년	여성	7,428 (72.1%)	2,478 (24.0%)	3,326 (32.3%)	1,048 (10.2%)	326 (3.2%)	115 (1.1%)	135 (1.3%)
	남성	2,877 (27.9%)	396 (3.9%)	1,916 (18.6%)	283 (2.7%)	128 (1.2%)	146 (1.4%)	8 (0.1%)
	계	10,305 (100.0%)	2,874 (27.9%)	5,242 (50.9%)	1,331 (12.9%)	454 (4.4%)	261 (2.5%)	143 (1.4%)

*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최초 인입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나. 피해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괴롭힘	기타**
2018년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년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년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년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2022년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2023년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2024년	16,833 (100.0%)	4,182 (24.9%)	1,384 (8.2%)	2,890 (17.2%)	2,244 (13.3%)	4,358 (25.9%)	354 (2.1%)	1,421 (8.4%)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피해 유형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 피해자별 호소 피해 내용 중복 집계

※ 피해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번 입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집계

예) 피해자 1인이 '유포' 피해를 두 번 경험한 경우 1건으로 집계,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함께 경험한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기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관계 미상*
2018년	1,315 (100.0%)	198 (15.1%)	169 (12.9%)	309 (23.5%)	136 (10.3%)	5 (0.4%)	498 (37.9%)
2019년	2,087 (100.0%)	331 (15.9%)	373 (17.9%)	500 (24.0%)	227 (10.9%)	5 (0.2%)	651 (31.2%)
2020년	4,973 (100.0%)	1,239 (24.9%)	280 (5.6%)	429 (8.6%)	227 (4.6%)	15 (0.3%)	2,783 (56.0%)
2021년	6,952 (100.0%)	1,963 (28.2%)	548 (7.9%)	539 (7.8%)	290 (4.2%)	17 (0.2%)	3,595 (51.7%)
2022년	7,979 (100.0%)	2,295 (28.8%)	730 (9.1%)	603 (7.6%)	481 (6.0%)	17 (0.2%)	3,853 (48.3%)
2023년	8,983 (100.0%)	3,391 (37.8%)	1,868 (20.8%)	870 (9.7%)	766 (8.5%)	29 (0.3%)	2,059 (22.9%)
2024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게시판 상담	기타*
2018년	1,315 (100.0%)	868 (66.0%)	437 (33.2%)	10 (0.8%)
2019년	2,087 (100.0%)	1,400 (67.1%)	675 (32.3%)	12 (0.6%)
2020년	4,973 (100.0%)	3,555 (71.5%)	1,405 (28.3%)	13 (0.3%)
2021년	6,952 (100.0%)	5,467 (78.6%)	1,441 (20.7%)	44 (0.6%)
2022년	7,979 (100.0%)	6,436 (80.7%)	1,491 (18.7%)	52 (0.6%)
2023년	8,983 (100.0%)	6,710 (74.7%)	2,226 (24.8%)	47 (0.5%)
2024년	10,305 (100.0%)	6,766 (65.6%)	3,502 (34.0%)	37 (0.4%)

* 전화, 온라인게시판 상담을 제외한 센터방문, 이메일 등 기타 경로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나. 피해 인지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인지 경로 미상*
2018년	241 (100.0%)	74 (30.7%)	103 (42.7%)	64 (26.6%)
2019년	525 (100.0%)	200 (38.1%)	187 (35.6%)	138 (26.3%)
2020년	1,808 (100.0%)	477 (26.4%)	817 (45.2%)	514 (28.4%)
2021년	2,789 (100.0%)	964 (34.6%)	560 (20.1%)	1,265 (45.4%)
2022년	3,910 (100.0%)	1,322 (33.8%)	767 (19.6%)	1,821 (46.6%)
2023년	4,780 (100.0%)	1,975 (41.3%)	1,633 (34.2%)	1,172 (24.5%)
2024년	6,086 (100.0%)	2,079 (34.1%)	3,059 (50.3%)	948 (15.6%)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 경로

다. 피해영상물 유형

(단위: 개)

기간	합계	동영상	사진
2018년	3,849 (100.0%)	808 (21.0%)	3,041 (79.0%)
2019년	13,004 (100.0%)	1,699 (13.1%)	11,305 (86.9%)
2020년	48,958 (100.0%)	5,234 (10.7%)	43,724 (89.3%)
2021년	41,830 (100.0%)	6,524 (15.6%)	35,306 (84.4%)
2022년	35,467 (100.0%)	10,281 (29.0%)	25,186 (71.0%)
2023년	45,107 (100.0%)	11,407 (25.3%)	33,700 (74.7%)
2024년	59,549 (100.0%)	11,300 (19.0%)	48,249 (81.0%)

※ 동일한 피해영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될 수 있어, 삭제지원 건수와 피해영상물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가 삭제 요청한 피해영상물과 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하여 확보한 피해영상물이 포함됨

라.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 사이트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타*
2018년	28,879 (100.0%)	8,239 (28.5%)	6,705 (23.2%)	10,312 (35.7%)	848 (2.9%)	-	-	2,775 (9.7%)
2019년	95,083 (100.0%)	26,170 (27.5%)	31,369 (33.0%)	4,337 (4.6%)	2,042 (2.1%)	424 (0.4%)	442 (0.5%)	30,299 (31.9%)
2020년	158,760 (100.0%)	38,332 (24.1%)	25,383 (16.0%)	65,894 (41.5%)	14,550 (9.2%)	796 (0.5%)	1,522 (1.0%)	12,283 (7.7%)
2021년	169,820 (100.0%)	59,113 (34.8%)	30,372 (17.9%)	31,980 (18.8%)	29,608 (17.4%)	3,717 (2.2%)	1,301 (0.8%)	13,729 (8.1%)
2022년	213,602 (100.0%)	95,485 (44.7%)	37,025 (17.3%)	31,053 (14.5%)	28,111 (13.2%)	6,427 (3.0%)	2,519 (1.2%)	12,982 (6.1%)
2023년	245,416 (100.0%)	114,672 (46.7%)	73,245 (29.9%)	35,599 (14.5%)	12,601 (5.1%)	5,070 (2.1%)	2,045 (0.8%)	2,184 (0.9%)
2024년	300,237 (100.0%)	129,268 (43.0%)	117,029 (39.0%)	32,168 (10.7%)	9,053 (3.0%)	9,824 (3.3%)	1,697 (0.6%)	1,198 (0.4%)

* 웹하드, P2P, 블로그, 아카이브 등

마.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요청* (제3항 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3항 제2호)
2021년	169,820 (100.0%)	123,138 (72.5%)	13,245 (7.8%)	33,437 (19.7%)
2022년	213,602 (100.0%)	164,883 (77.2%)	13,859 (6.5%)	34,860 (16.3%)
2023년	245,416 (100.0%)	192,424 (78.4%)	17,267 (7.0%)	35,725 (14.6%)
2024년	300,237 (100.0%)	244,457 (81.4%)	18,131 (6.0%)	37,649 (12.6%)

* 수사기관 요청(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1호)의 선제적 삭제지원 건수는 신원 불상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건수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2호)의 선제적 삭제지원은 피해자 수에는 미포함, 삭제지원 건수에는 포함

바. 피해영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기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개인정보 동반유출	개인정보 유형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2018년	28,879 (100.0%)	5,935 (20.6%)	6,700 (100.0%)	4,793 (71.5%)	546 (8.1%)	533 (8.0%)	622 (9.3%)	206 (3.1%)
2019년	95,083 (100.0%)	17,427 (18.3%)	22,437 (100.0%)	16,595 (74.0%)	2,203 (9.8%)	2,773 (12.4%)	820 (3.7%)	46 (0.2%)
2020년	158,760 (100.0%)	24,962 (15.7%)	37,800 (100.0%)	20,873 (55.2%)	8,991 (23.8%)	2,525 (6.7%)	5,237 (13.9%)	174 (0.5%)
2021년	169,820 (100.0%)	25,432 (15.0%)	27,047 (100.0%)	12,803 (47.3%)	7,058 (26.1%)	4,794 (17.7%)	2,375 (8.8%)	17 (0.1%)
2022년	213,602 (100.0%)	39,298 (18.4%)	48,926 (100.0%)	19,322 (39.5%)	24,445 (50.0%)	4,213 (8.6%)	895 (1.8%)	51 (0.1%)
2023년	245,416 (100.0%)	57,082 (23.3%)	73,949 (100.0%)	30,458 (41.2%)	29,341 (39.7%)	10,611 (14.3%)	3,517 (4.8%)	22 (0.03%)
2024년	300,237 (100.0%)	77,652 (25.9%)	98,101 (100.0%)	54,888 (55.9%)	28,521 (29.1%)	10,083 (10.3%)	4,292 (4.4%)	317 (0.3%)

* 유포된 게시물별 개인정보 유출 내역 중복 집계

※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확인되어 삭제지원한 실적임

4.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가. 수집 사이트(도메인) 서버 국가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건)

국가	합계	미국	호주	네덜란드	한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일본	기타*
사이트 수 (비율)	26,318 (100.0%)	18,535 (70.4%)	1,548 (5.9%)	1,496 (5.7%)	1,223 (4.6%)	766 (2.9%)	554 (2.1%)	373 (1.4%)	309 (1.2%)	1,514 (5.8%)

*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 센터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계함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2023년	2024년
건수	6,867	165	6,702

※ 미국 NCMEC: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시스템인 '사이버 팁라인(CyberTipline)' 운영

다.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73,863	9,156	27,297	37,410

※ 해외서버 기반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 호스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불법성증명공문(근거법, 수사중인 사건번호, URL) 발송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피해상황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접수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상담전화
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온라인게시판 상담
d4u.stop.or.kr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URL 주소**
- 피해영상물 영상·사진 **[캡쳐본 불가]**
  * 단, 캡쳐본 자체가 유포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
- **유포 키워드**(피해영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행인 신보라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TEL. 02-735-1050 I FAX. 02-6363-8493
홈페이지 www.stop.or.kr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2025-001
디자인 (주)인디엔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